

마산교구 신임 소공동체장 교육

천주교 마산교구 사목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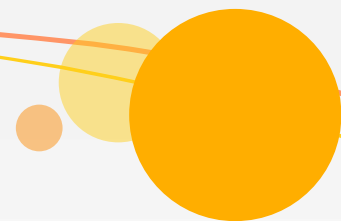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좋은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순간보다 흐뭇한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손끝보다 짜릿한건 없을걸

혼자선 알수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번 더들어도 기분좋은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마음보다 포근한건 없을걸

혼자선 알수없는 야릇한 행복
억만번 더들어도 기분좋은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손끝보다 짜릿한건 없을걸 짜릿한건 없을걸 짜릿한건 없을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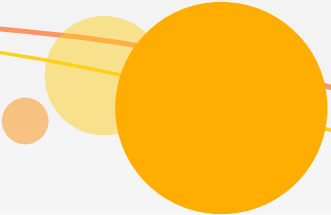




선임 소공동체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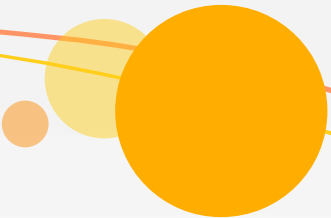
천주교 마산교구 사목국 최태준(필립보)신부

목 차



1. 뜨거운 열음 : 한국형 소공동체
 2. 소공동체란 무엇인가?
 3. 왜 소공동체가 필요한가?
 4. 시노드적 에토스 창출을 위한 시노달리타스
 5. 소공동체를 통한 시노달리타스 구현
 6. 봉사의 사전적 의미와 그리스도교적 의미
 7. 그리스도인의 봉사 자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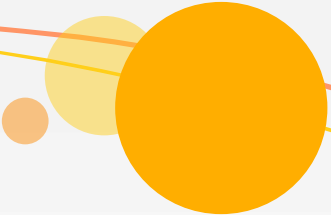
뜨거운 열음 : 한국형 소공동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남미나 북미 또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소공동체 운동은 평신도를 포함하는 온 백성이 중심인 자율적인 모임이지만

반구역에 접목된 한국형 소공동체는 강력한 교회 조직의 일부로 자발적이지도 사목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성직자 중심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목 협의회 조직의 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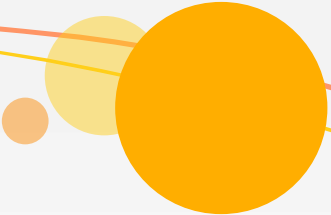
뜨거운 열음 : '위'로부터의 소공동체



남미의 기초공동체는 “평신도들의 활동과 책임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명시된”(발터 카스퍼, 가톨릭신문, 2007년 4월 15일.) 공동체이지만, 한국형 소공동체는 성직자의 의지가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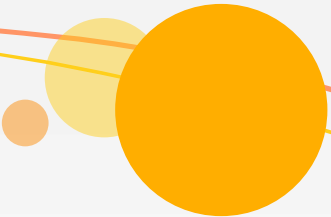
'위'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기에 평신도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를 하느님 백성으로 이해한 공의회의 교회와 배치됩니다. 그리고 '작은'교회를 주장하면서도 관심은 '큰' 교회에 있습니다.

소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이나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며, 문화적 · 지역적 · 역사적 · 심리적 차이와 경계를 넘어서고, 다른 종교들과 함께 환경, 이주자, 인종차별, 전쟁, 폭력, 마약 등과 같은 문제에 공동 대처하며, 종교간 대화에 개방적 자세로 임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은 행정이나 시설, 숫자가 아니라 교회 선교 사명에 대한 투신을 통해서 라는 믿음을 가진다.”(호세 마린스, 평화신문, 2007년 9월 9일.)

소공동체란 무엇인가?



▷ 교회 =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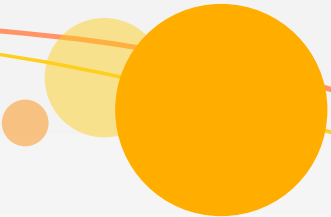
∴ 신자들의 모임인 소공동체 = 지역의 작은 교회

▷ 소공동체 =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

(The New Way of Being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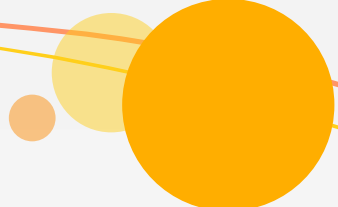
▷ 예수님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는 이상적인 사목적 대안

왜 소공동체가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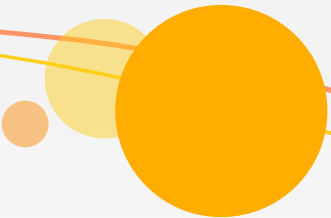
- ① 본당 안에서 공동체로 서로 일치되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 ② 잘못 인도되고 방향을 그르친 신앙 감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 ③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습니다.
 - ④ 소공동체는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⑤ 직무 사제직 중심에서 보편 사제직이 활성화되는 교회로 건너감.
 - ⑥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실현합니다.
-

시노드적 에토스 창출을 통한 시노달리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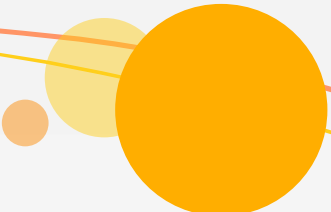
- ▷ 에토스(고대 그리스어: ἦθος, ἔθος, ēthos) : 공동체를 특징 짓는 관습 또는 특징. 특정한 공동체가 중시하는 가치, 믿음, 정신 따위를 교육과 학습을 통해 개인이 내면화한 고유한 성품.
- ▷ Synodalitas : 현대사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걸어야 할 평화와 쇄신을 길을 일컫는 말로, 제도뿐 아니라 인간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신과 의식, 삶(존재)의 방식까지도 아우르는 의미를 지닙니다.

시노드적 에토스 창출을 통한 시노달리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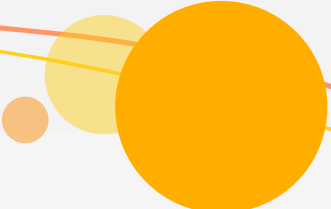
-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운 지위와 품위를 부여받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그 품위와 행위에서 평등을 누린다는 인식.
 - 교회 안에서 가장 미소한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
 - 세상의 이해관계나 인간적 기준이 아닌
하느님 자녀로서 지니는 품위에 바탕을 둔 인격적인 관계 형성.
- ⇒ 한국의 박해 시대 교우촌 신자들 : 사회적 신분이나 학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서로를 하느님의 고귀한 자녀요
거룩한 품위를 부여받은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소공동체를 통한 시노달리타스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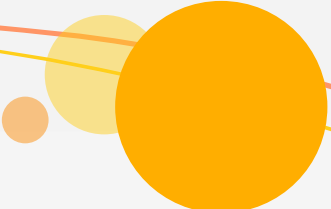
- ▷ 단순한 의견 수렴의 방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며 문화입니다.
- ▷ 하느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환대하는 삶이 주는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고귀한 품위와 존엄을 지켜주고 보살피며 인간적인 결점과 나약함을 수용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윤리적 규범을 창출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나아가 ‘시노드적 방식’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식별하여 함께 답을 찾고 책임지는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봉사’의 사전적 의미



- ① **자발성** :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동기에서 스스로 하는 활동.
- ② **공익성** : 타인, 지역사회, 국가발전, 인류의 번영을 위한 활동.
- ③ **무상성** :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남을 돕는 활동.
- ④ **계획성과 지속성** : 사전 계획에 의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필요한 지식, 기술 습득.

그리스도교적 의미의 봉사



▷ 세르부스(Servus) : 남을 위하여 돕거나 시종드는 것. 종. 노예.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주님의 종들의 종”

세르부스 세르비오룸 데이(Servus Serviorum Dei)

▷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필리 2,7-8)

⇒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종.

▷ 자원봉사자(Volunteer) : Voluntas(자유의지) + 사랑(Caritas)

복음화와 친교를 위한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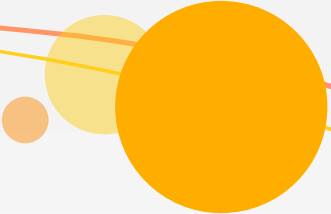
- 공동체의 복음화와 일치를 위한 친교에 봉사하는 것이
소공동체장의 역할.

: 이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총과 도우심을 청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활동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 간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복음의 기쁨, 279-280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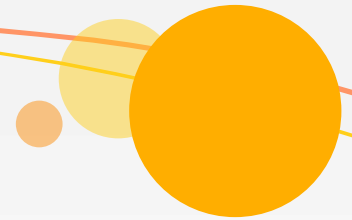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의 봉사 자세



- ①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 ② 보답을 생각하지 않는 성실함이어야 합니다.
- ③ 항구해야 합니다.
- ④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봉사
 -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조력자로
 - 이웃사랑을 통한 하느님 흠숭의 완성자로 부름받고 선택된 봉사자

“봉사는 나의 기쁨입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 41, 10)

우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하느님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소공동체가 있고,
소공동체 안에는 말씀과 친교에 봉사하는 소공동체 장이 있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사목국